

청년·여성 일자리 8,676개 창출

광주시는 지속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2010년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대·중소 유통업체 등 상생발전 유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물가안정으로 가계생활 안정 도모 등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인턴제(220명), 공공근로사업(1천250명), 저소득층 희망근로프로젝트(3천900명/1일), 노인·여성·장애인(5천116명) 및 청년(3천560명)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실업자와 비진학청소년 448명을 29개 취업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시킬 방침이다. 또 서민 및 금융소외자에게 1인당

광주시 내년 '서민생활 안정 대책' 중점 추진

금융 소외자에 3~5백만원 대출 '빛고을론'도

3~5백만원을 대출해주는 '빛고을론', 미소금융재단과 연계한 저소득층 등 대상 무담보 대출(1천만원~1억원 이내), 1천20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슈퍼마켓·음식점 등 자영업자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지역중소기업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구조고도화자금(250억원, 업체당 13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1천30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벤처기업지원(150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창업투자보조금(10억원 이내), 시설개선자금·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지원 등 모두 2천1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등장으로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영역의 자율조정 유도를 위한 사전조정협의회 운영, 유통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지역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 및 백화점 입점 지원,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등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신규 복지대책도 마련했다.

1월부터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자 자격 및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며, 1~3급 장애진단과 관련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평균소득 70%(4인 가구 274만원) 이하에서 100%(4인 가구 39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대상도 장애 1급에서 2급으로,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도 기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된다. 언어·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 소득기준에 따라 매달 1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 초등학교생들의 새해맞이

지난 29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의 덴류 제1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201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직접 만든 '2010' 모양의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올 410개 기업 2조3천억 투자유치

광양·무안 '최우수'·여수·장흥·강진 '우수' 선정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전남도의 투자유치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408개의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 11월 말까지 410개 업체 2조3천402억원의 규모를 유치해 1만1천5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의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 전남 서남해안에 '5GW 풍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6개 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5조5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미래 전략사업 추진 기반 구축이라는 큰 성과도 거둬들었다.

또한, 영암·해남 기업도시 개발계획 정부 승인으로 본격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괄목할만한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투자유치에 최선을 기울여 온 광양시와 무안군을 투자유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하고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31일 '전남 투자유치 대상'을 시상한다.

'전남 투자유치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 낙후도에 따라 투자유치 여건이 양호한 시·군과 열악한 시·군을 A·B군(群)으로 분류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했다.

평가결과 최우수상은 A·B군에서 9개 기업 1조4천24억 원을 유치한 광양시와 12개 기업 344억 원을 유치한 무안군이 각각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19개 기업 2천416억 원을 유치한 여수시와 10개 기업 1천455억 원을 유치한 장흥군이 A군에서, 12개 기업 216억 원을 유치한 영광군과 6개 기업 192억 원을 유치한 강진군이 B군에서 각각 선정됐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 최우수상은 23개 기업을 유치한 경제과학국이, 우수상은 해양수산국이, 장려상은 농림식품국과 감사관실이 각각 차지했다. 읍·면·동의 경우 목포시 원산동 등 6개 읍면이 상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고효율 가로등 램프 교체 등 저탄소 녹색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가 조명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프로그램 CDM(Progra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CDM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을 수행한 후 감축 실적을 해당 도시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감축 의무가 있는 타 도시 등에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30일 시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한국전력공사 이전 기관), 광주도시공사와 공동으로 CDM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고효율 가로등 램프 교체사업 ▲LED 도로조명 적용사업 ▲LED램프 건축물 적용사업 등이다.

시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르면 연간 1만5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 판매 예상 수익금도 19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일 정용 한국인 4,727명 연금기록 확인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 민간인 4천727명의 연금기록을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은 2차 세계대전때 일제에 강제 징용돼 일본 기업 등에서 일했던 한국 민간인 4천727명의 후생연금기록을 확인,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기록을 제공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출신 군인·군속에 관한 자료는 한국 정부에 열람토록 한 바 있으나 전시에 동원된 민간인의 연금기록을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일본 강점기의 징용·징병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작년부터는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당한 본인에게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유족에게는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등록금 상한제·학비 감면 확대' 추진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학비감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및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이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재정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등록금 중 학비감면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1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천일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월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제조업(천일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 검사를 '영업조합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품질검사에 도입으로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국내 천일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수충출대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강진 청자·함평 나비축제 '올 문화관광축제' 선정

광주 7080총장축제는 '유망축제' 뽐내

강진 청자축제와 함평 나비축제 등 광주·전남 지역 7개 축제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10 문화관광축제'로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전문가 심사를 거쳐 44개 지역 축제를 '2010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총 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8억원을 지원하는 대표축제로는 보령 머드축제와 안동 국제탈춤축제가 선정됐으며 강진 청자축제와 함평 나비축제는 김제 지평선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춘천국제마미축제 등과 함께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최우수 축

제로 뽑혔다.

또 우수 축제(1억 5천만원)로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남원 춘향제, 무주 반딧불축제, 천안 흥타령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등 10개가 선정됐으며 광주 김치대축제, 담양 대나무축제, 광주 7080총장축제, 영암 왕인문화제 등 24개 축제는 유망축제(7천만원)로 뽑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UPGRADE

최고의 품질로 업그레이드

www.upgrade.com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모자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28-0102, 010-5103-4004, 010-7179-0108